

발제문: 세계기독교와 한국교회 선교

발제자: 임태순 선교사 (GLFocus/GMP) 2023년 6월 14일 (수)

들어가는 말

“세계기독교”는 단순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은 용어가 아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다. 이제까지 세계 기독교 하면 서구의 기독교가 근대 선교운동을 통해 온 세상에 확산된 상태로 이해되어 왔는데, “세계기독교” 개념은 이 관점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라는 의미다. 근대선교운동이 (서구의) 기독교를 전세계로 퍼뜨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세계화된 기독교는 서구 교회가 그리던 모습이 아니었다. 서구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이라기 보다는 각 문화에 심겨진 복음은 그 문화의 고유한 기독교 정체성들로 새롭게 형성되었고 그 다양한 정체성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21세기의 세계화된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기독교로 성장했다. “세계기독교”는 이 새로운 기독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때문에 세계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기존의 이해를 내려놓아야 한다.

근대선교 역사를 설명한 스티븐 니일(Stephen Neill)의 문장에 대한 라민 사네(lamin Sanneh)의 비판이 이 관점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니일은 근대선교운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크리스텐덤이 전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두 세기 동안 선교사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네는 이 문장은 두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근대선교운동을 서구 크리스텐덤의 확장으로 해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세계화를 선교사들의 공헌이라고 본 것이다. 근대선교운동은 서구 기독교의 확장으로 볼 수 없으며 기독교의 세계화도 선교사의 공헌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위대한 세기” 동안 각 지역에 형성된 기독교는 그 지역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의 기독교였으며 이 교회들은 선교사와 토착 지도자들이 함께 희생적 사역을 한 결과였다.

각 지역에 뿌리내린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의 이식이 아니며 반대로 그 지역 토양에서 새롭게 자란 새로운 품종의 나무로 이해된다. 전세계, 특히 비서구 다수세계에 형성된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의 모조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선교학계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한국 기독교의 형성과정을 예로 든다. 재미 한인학자인 옥성득 교수는 2014년 『한국기독교형성사』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를 출판했다.¹ 이 책에서 옥 교수는

¹ 이 책은 그해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IBMR)이 선정한 선교 관련 올해의 저서 중 하나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서구 기독교의 이식의 결과가 아니라, 서구로부터 받은 복음이 한국적 토양에서 재해석되어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기독교로 “형성”(Making)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새로운 기독교의 형성 과정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앵글로색슨(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기독교가 한국에서 중국 기독교와 한문 문서를 이용하여 한국종교와 만나 접촉점을 찾고 대화하면서 한국 문화에 접목되어 새로운 한국적 기독교라는 신품종을 만든 통합의 역사를 탐구한다. ... 삼겹줄처럼 강력한 미중한의 삼중 요소의 통합은 한국인의 주도성과 영성과 신학적 창조성으로 만들어졌다. ... 이 책은 한국 기독교 형성과정에 나타난 기독교의 번역성과 현지화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그 종교 문화적 토착성을 가진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길을 찾으려 한다. (옥성득 2020, 15-16)

한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가 가장 잘 이식된 사례로 여겨져 왔는데 옥성득 교수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한국 기독교는 복음의 번역성에 기초해 “새롭게 형성된 신품종 기독교”이며, 새로운 기독교적 정체성으로 태어난 한국 기독교는 다시 세계화된 기독교의 보편성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기독교 형성의 길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 기독교적 틀로 설명되던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새로운 기독교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21세기의 세계화된 기독교, 즉 “세계기독교”는 전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고유한 정체성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본 소고에서는 21세기 세계화된 기독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왜 “세계기독교”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가? 를 살펴보고, “세계기독교”의 새로운 이해가 우리의 선교 현장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기독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배경

세계기독교는 전세계 모든 문화권의 다양한 기독교 정체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독교 이해다.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모든 기준들은 서구 교회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기독교는 각 문화권에서 형성된 토착교회들의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세계기독교”를 이룬다.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이들이 전세계로 연결되는 두 방향의 운동이 공존한다. 특정 문화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만들어 내는 기독교다. “기독교” 앞에 “세계”를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구 기독교는 그 목소리들 중 하나로 간주된다. 물론 피부적으로는 여전히 세계화된 기독교를

나로 선정되었다.

규정하는 것이 서구 기독교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 세계의 대부분의 학문적 업적이 서구의 우수한 신학교들과 서구 학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모든 문화권의 교회들이 세우는 다양한 기독교적 정체성들이 모여 기독교를 이룬다는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교회가 주도하던 기독교 이해는 물러가고 서구의 기독교와 거리가 먼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들이 모여 세계화된 기독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서구 기독교가 규범이 되던 시대를 넘어 “세계기독교”로의 전환이 이뤄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배경이 되는 다음의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

1. 인구통계학적 역전: 기독교 무게중심의 이동

첫째 기독교의 인구 통계적 변화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학 저널 중 하나인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IBMR)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전세계 기독교 인구 중 북반구(서구) 기독교에 속한 비율은 32.7%에 불과하며 기독교 인구의 67.3%는 서구 밖의 비서구 다수세계에 살고 있다. 이 비율은 2050년이 되면 23%와 77%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세계화된 기독교를 더 이상 서구 기독교의 관점에서 배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교회가 주도하던 이제까지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함을 암시한다. 비서구 지역 출신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존 파라트 (John Parratt)는 기독교의 인구학적 무게중심의 전환은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라는 인식에서 세계적인 종교, 아니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해석된 기독교 정체성들의 총합이라는 인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 신앙이 직면한 가장 큰 변화를 한 가지 꼽으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중심이 유럽과 북미로부터 멀어지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였다. ... 단순한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더 이상 '서구' 종교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전세계의 종교가 되었으며 서구 교회는 이를 구성하는 단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Parratt 2004, 1)

서구의 대표적 선교학자 중 하나인 티모시 텐넌트 박사도 이 관점에 동의한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의 정체성을 주도하던 서구 기독교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이고 미래에는 기독교를

대변하는 얼굴이 비서구 지역 교회 성도로 바뀔 것이라 전망한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얼굴"**은 런던에서 보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서구에 사는 우리에게 '스웨덴인 불교도'라는 말이 매우 어색하게 들리듯이, 머지 않은 장래에는 '백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리고 조금은 모순처럼 들리는 말이 될 지도 모른다. 오늘날 네번째 기독교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등 우리가 친숙한 기독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롭게 일어나는 분파이다. 앤드류 월스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프리카 기독교가 21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가 될 것이다." (Tennent 2007, 105)

2. 서구 기독교 내부의 목소리

둘째, 서구 기독교의 관점에서 규정되던 기독교를, "세계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구 기독교 내부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된 기독교 시대에는 서구 기독교가 이전의 주도적 위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선교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하던 이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서구, 특히 유럽의 기독교가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이런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선교학회(ASM) 회장이었던 벤 겔더의 주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2013년 학회의 회장으로 행한 연설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Latourette (1937)에 의해 훌륭하게 틀이 짜이고 Neill (1964)에 의해 요약된 "기독교 선교 역사"는 서구 기독교의 확산 이야기라는 서구중심적 프레임에 기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Irvin과 Sunquist (2009, 2012)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전세계 모든 기독교가 함께 이룬 운동"의 역사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 부상하고 있는 남반구 교회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역사적 사료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영역에서도 명백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보편적 규범으로 여겨졌던 "**유럽 부족 기독교 신앙 전통**" (the *Euro-tribal* Christian faith tradition)이 **주변부의 하나의 관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Van Gelder 2013, 45)

이 강연에서 그는 서구 중심적 기독교 역사 해석을 내려놓고 기독교 역사를 다양한 문화 위에서 형성된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룬 것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의 보편적 규범으로 간주되었던 서구 기독교적 전통을 "유럽 부족"에 의해 발전된 "하나의" 신앙 전통이며 기독교를 구성하는 "주변부"의 관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신을 낮은 겸손한 주장이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매우 파격적인 관점이었다. 벤 겔더의 이 표현은 서구 기독교가 급격히 쇠락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도에 나타난 통계는 PEW 통계센터에서 2017년 발표한 것으로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7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British Academy가 2015년 발표한 정기적인 교회 출석자의 비율은 전혀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1980년 11.1%에서 35년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 추세를 통해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영국이 빠르게 선교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유럽) 교회의 급격한 붕괴의 원인을 분석한 레슬리 뉴비긴은 이 상황에 대해 의외의 진단을 내린다. 뉴비긴은 인도 남부에서 40년 가까이 선교사역을 한 뒤 1974년 귀국해 변화된 영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 한때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세계선교를 주도하던 영국교회의 교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서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한다. 많은 연구 뒤 그는 계몽주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서구의 신학, 서구의 복음 해석이 오히려 서구인들을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서구 교회의 신학은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물든) “일종의 혼합주의”라고 진단한다. 역사비평적 성경연구는 성경의 계시성을 약화시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차가운 경멸”(cold contempt)로 대하도록 만들었다고 탄식한다.

선교사는 두 가지 함정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는 문화에 대한 이해에 실패해 메시지가 상황과 무관해지는 상태고, 다른 하나는 기존 문화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무비판적으로 기존의 문화에 함몰되어 메시지가 왜곡되는** 경우다. 두번째 상황을 우리는 ‘**혼합주의**’라 부른다. 현대 영국(그리고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가 “**세련된 혼합주의**”(an advanced case of syncretism)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Newbigin 1983, 23).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의 기독교 정체성을 세계화된 오늘날의 기독교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구가 이미 선교지로 변해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서구 교회는 세계화된 기독교를 구성하는 한 일원에 불과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구 교회가 뒤로 물러선 상황에서 오늘날의 세계화된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누가 이 세계기독교를 규정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기독교” 패러다임이다. 즉 서구 교회가 물러난 빈 자리를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서구 다수세계교회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세계화된 기독교의 성격 규정을 주도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정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기독교 정체성을 세우는 상황이 바로 “세계기독교”의 등장 배경이다.

3. 전환된 중심,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세계화된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이 아니라 “세계기독교”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세계화된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구 밖의 비서구 다수세계 교회들이 나타내는 기독교 정체성들이 서구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교회역사학자인 필립 켄킨스는 그의 책 『신의 미래』 (*The Next Christendom*)에서 이를 잘 설명했다. 그는 비서구 다수세계 교회들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미래의 기독교적 정체성은 서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 전망했다. Cabrita와 Maxwell은 켄킨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켄킨스의 주장은 단순하다: 20 세기 동안 기독교 신앙은 남쪽으로 움직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기독교 인구의 중심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거대한 이동이 있었다. 동시에 ‘북반구’ (*global North*)로 알려진 유럽과 북미 등의 기독교는 말기적 침체에 빠졌고 교회들은 쪼그라들고 예배당은 비어갔다. '남반구'에서 전례가 없는 거대한 교회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독교는 또 다른 위대한 종교개혁의 문턱을 넘고 있거나 실제로 넘어섰다. 이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초자연적 현상을 중시하며 영적인 관점을 지향하는 (남반구) 신앙이 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북반구의 상대주의적 신앙을 도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abrita & Maxwell 2017, 7)

세계기독교의 중심축으로 변화되고 있는 남반구 기독교는 북반구(서구)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신앙적 성향을 나타낸다. 신학적, 윤리적으로 더욱 보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초자연적 신앙현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며 성경해석에서도 근본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려 한다. 비서구 교회들의 가세는 그들과 함께 (기독교 안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로 기독교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구 기독교가 주도하던 기독교 정체성을 넘어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다양한 기독교 이해들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기독교”로 나아간다.

세계화된 기독교 상황에서의 복음 이해와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의 형성은 최근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1세기 선교학 토론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기독교”에 관한 학술적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앤드류 월스와 라민 사네가 주도해 1992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매년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예일-에딘버러 세계기독교 및 선교역사학회”의 활동이다.² 또한 서구의 우수한 신학교, 대학교들의 “세계기독교”를 다루는 연구 기관 설립과 각 대학에 세계기독교 관련 과목 개설이 확대되고 있다.³ “세계기독교”

² 이 학회의 연구활동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근 교수가 그의 논문 “세계기독교학의 부상과 연구 현황”(2014)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³ 다음은 “세계기독교”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의 이름이다. 에딘버러 대학의 Centre for the Study of world Christianity, 보스턴대학의 Center for Global Christianity and Mission, 캠브리지 대학의 Cambridge Centre for Christianity Worldwide, 미국의 칼빈대학교의 Nagel Institute for the Study of World Christianity, 고든-콘웰 대학교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Studies in World Christianity, 풀러신학교의 Global

를 전공한 학자들이 양성되고, 저널들을 통해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의 세계화된 기독교를 “세계기독교” 패러다임에 기초해 새롭게 재해석하고 미래의 기독교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4. “세계기독교”의 개념적 정의

기존의 서구 기독교의 전세계적 확장과 구별되는 “세계기독교”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세계기독교”의 정의로 널리 공유되는 어빈 (Dale T. Irvin)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기독교”는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관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용어는 그 안에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 ... “세계기독교”는 전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 기독교 공동체들, 그들의 신앙과 실천들의 다양한 교회적 전통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인 경험들을 알려주고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용어는 전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신앙과 그리스도인 삶의 지역적이며 토착적 표현들의 다양성, 그리고 이 다양성이 어떻게 서로 비판적이며 건설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Dale T. Irvin 2008, 1)

어빈 교수는 세계기독교를 두 개의 상반된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각 문화적 토양에 심겨진 복음이 토착화된 고유의 기독교적 정체성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다. 복음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되며 그 결과로 고유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다른 하나는 각 문화권의 다양한 기독교적 이해, 번역된 복음이 세계화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선교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 (Paul Hiebert)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전자는 “비판적 상황화” 또는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 과정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국제적인 해석학적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글로벌 신학화” (Global-Theologizing) 과정이라 할 수 있다. (Cathcart & Nichols 2009, 212) 즉 세계기독교는 자신학화를 통한 기독교 신앙의 지역화 (토착화) 과정과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기독교 정체성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세계화 과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기독교는 상태에 도달해 있는 정적인 모습이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에 가깝다.

● 세계기독교를 형성하는 두 흐름

Research Institute 그리고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교의 The Paul G. Hiebert Center for World Christianity and Global Theology 등 다양하다. 한국의 대학교와 신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최근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Studies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헛볼 트리니티 대학원 등에서도 세계기독교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운동

1. 세계기독교와 선교운동의 통합

전세계에 세워진 다양한 교회들의 토착적 정체성들의 총합으로서의 세계기독교를 두 개의 상반된 흐름으로 설명한 어빈 교수의 정의는 선교운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운동은 전세계 모든 지역과 상황 속에 그 문화 고유의 토착적인 교회들을 세우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들이 세계화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통합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새로운 문화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들이 개척될 때 외부자가 이해하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현지 신자들의 주도로 토착화, 자신학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 문화에 기초한 고유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자국 내 타문화 선교상황 뿐아니라 국외의 타문화 선교현장에도 적용된다. 한편 각 지역에서 고유의 기독교 정체성으로 발전한 토착 기독교들은, 세계기독교 안에 있는 두번째 흐름, 즉 전세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각 문화권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선교운동을 지향한다. 각 문화와 지역의 거리가 짧아지는 세계화 움직임 속에서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다양한 선교운동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선교운동의 주요한 특성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전자의 흐름을 “복음의 번역 가능성”(translatability of the Gospel)이 구현되는 과정이라면 후자의 흐름은 다양한 색깔의 선교운동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만들어 내는 전지구적 차원의 선교운동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운동은 글로벌화(Globalization)과 로컬화(Localization)의 두 방향성이 공존하는 글로컬화(Glocalization)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선교운동은 서구 기독교가 비서구 지역으로 확산되는, 일방통행적이었던 근대선교운동의 패러다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이 서로 교차하며 상호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흐르는 선교이며 그 내용 역시 각 문화권의 다양한 기독교 정체성이 선교운동을 통해 전세계로 흘러간다는 면에서 다원적 선교라 할 수 있다.

2. “세계기독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21세기 선교운동은 기독교의 새로운 무게중심으로 성장한 비서구 다수세계 교회들의 선교운

동을 담아내야 한다. 이는 우월한 문명, 막강한 재정적 파워, 잘 정립된 신학 등을 앞세워 진행하던 서구의 크리스텐덤 선교 방식이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근대선교운동을 이끌던 서구의 선교방식을 비서구 교회들이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기독교 상황은 다수를 차지하는 비서구 교회들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즉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 패러다임은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아래 인용문에 나타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자기비판적 주장은 서구의 근대 선교 패러다임의 퇴진이 피할 수 없는 도전임을 보여준다. 그는 선교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장하고 있는 비서구 다수세계교회들의 관점이 반영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 겸손은 교회 성장과 세계복음화에 관한 엄청난 양의 책,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 등이, 활발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장기적인 생존여부를 염려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세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 곱씹히 숙고하게 만든다. ... 전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에 우리는 기성복 같은 전략들을 뻔뻔스럽게 수출하고 있다. 둘째 진정한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 ... 실제로 유럽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절실한 ‘선교지’... 이전에 복음을 받았던 국가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받았던 10배나 더 많은 선교사들을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보내고 있는 (인도의 경우처럼)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 (라이트 2012, 201-202)

그렇다면 과연 전세계 모든 교회의 선교운동이 연결된 “세계기독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서구 선교가 세운 틀 안에 비서구 출신 선교사들이 채워지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배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20세기 후반부터 서구교회가 이끌던 국제선교단체들은 이 방향으로의 개혁을 계속해 왔다. 단체의 리더십에 비서구 출신 지도자들을 세우고 단체 운영 방식도 비서구적 상황을 포용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서구적 틀이 유지된 채 비서구 선교자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 것으로 한계가 있었다. 세계기독교 상황은 서구와 비서구 출신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의 틀 자체를 새롭게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국제위클리프 번역선교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국제위클리프선교회는 서구 교회들 특히 북미주 교회들이 주도하던 전형적인 서구 선교단체였다. 그런데 이 선교회는 서구교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계기독교 (지구촌기독교)로 전환된 21

세기 상황에 맞도록 전세계 각 문화권의 토착 선교운동들의 연합으로 선교회의 기본 틀 자체를 바꿨다. 서구교회에 맞도록 세워져 있던 신학적, 선교학적 그리고 조직적 틀을 “세계기독교적” 패러다임에 맞도록 전환했다. 이를 위해 2011년 단체명도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서 “위클리프 글로벌연맹” (Wycliffe Global Alliance)으로 변경했다. 서구 선교사들이 갖고 있던 단체의 리더십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글로벌 차원의 공유된 리더십으로 전환한 것이다. 21세기 세계기독교 상황에서 “위대한 선교 세기”를 이끌던 전문 파송선교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이 전환 과정을 이끈 지도자였던 커크 프랭클린 (Kirk Franklin)은 21세기의 변화된 선교 상황을 담아내기 위한 위클리프 선교회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위클리프글로벌연맹 (WGA)의 지나온 여정을 예로 들어 (선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 다중심주의(polycentrism)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확고한 권력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리더십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중앙집권적 “국제” 구조를 떠나 분산되고 하이브리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WGA가 걸어온 여정은, 다중심주의 관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들은 선교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감을 제공한다. (Franklin 2017, 297)

“성경번역”이란 특정 사역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 목적을 보다 큰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로 변경한 것이고, “세계기독교”적 정체성 위에서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선교회 조직 자체를 바꾼 것이다. 성경번역 사역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글로벌 차원의 공유된 리더십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혁신적 도전이며 이는 21세기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구조를 보여주는 선지자적 결단이었다.

3. 초기 기독교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복귀

한편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모여 “세계화된” 기독교를 규정하고 이 세계 기독교 패러다임 위에서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선교구조로의 전환은, 그에 합당한 (선교) “내용의 변화”를 요구한다.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의 내용과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최근 대두되는 것이 초기 기독교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復歸다.

앤드류 월스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이며 문명적으로도 우월하지 않은 비서구 교회들은, 식민주의의 정치적 힘과 우월한 서구 문명을 앞세워 복음을 전파했던 서구의 선교 패턴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길은 핍박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선교 여정과 유사할 것이라 예측했다. 초기 기독교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그 이유를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문명의 변두리 출신들이었고 각종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정치적, 경제적 약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퍼뜨릴 수 있었던 비밀은, 오직 약함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 뿐이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후12:10) 외쳤던 바울의 고백 뿐이었다. 월스는 가난하고 무지한 비서구 교회들이 주도하게 될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새로운 선교운동은 여러 면에서 초기 기독교 선교와 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보쉬 (David Bosch)는 그의 책 『길의 영성』 (*A Spirituality of the Road*)에서 바울의 선교적 영성을, 권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희생되었지만 이를 통해 온 세상의 구원하신 십자가의 영성의 연장으로 설명한다. 바울 선교의 비밀을 “연약할 수 있는 용기” 즉 “약함의 선교”에서 찾는다. 초기 기독교 성공의 비밀을 연구한 앨런 크라이더 역시 그의 책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2016)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이 책의 부제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이 보여주듯이 그의 관심은 아무 힘이 없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당시 전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 에 있었다.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분석한 뒤 그는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은 저들의 약함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은 권력의 바깥에 위치해 있었고 오히려 권력의 탄압 대상이었다. 사회적 약자였으며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두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강점은 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특이한 삶의 방식이었고 사람들을 약한 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적 능력에 있었다.

초기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선교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세계기독교” 시대의 선교운동을 주도하게 될 비서구 교회들의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선교 모델이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선교의 진정한 힘은 약함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에 있었다. 정치적, 문명적, 재정적 배경이 없는 비서구 교회들이 주도하게 될 21세기 선교운동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던 초기 기독교 상황을 재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에 주는 의미

그렇다면 세계기독교 시대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어떻게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적용할 수 있을까? “세계기독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선교운동 패러다임을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본 소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서구 선교 지도자들의 고백(?)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저들의 외침은 서구적 선교 패러다임을 따라 선교운동에 참여해 온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세기” 동안 근대선교운동을 이끈 서구 선교사들은, 서구 문명과 서구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 여겼고 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신들이 “젊어져야 할 운명”으로 믿었다. 이 사명감 때문에 희생적으로 서구 문명과 서구 기독교를 전세계에 전파했다. 전세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꿈이 성취되었다고 느꼈다. 그런데 1970년대 비서구 여러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선교중지 (모라토리엄) 요청”을 받게 되면서 서구교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선교사의 존재가 자신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떠나 달라는 피선교지 교회의 요구를 접하면서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시절 자신들의 선교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시작했다. 그리고 서구 선교운동이 어느 순간 자기 중심적 오만에 빠져 있었음을 발견한다. 마침 그 기간 동안 진행된 서구 (유럽) 교회의 급격한 붕괴 상황은 이 자기성찰을 더 깊고 무겁게 만들었다. “서구 기독교를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이의 확산에 전력투구했던 과거의 선교는 옳았는가?” 이들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전세계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선교운동을 위해 진지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주도하던 위치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단순히 “세계기독교”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려 했고 비서구 교회들과 함께 하는 세계선교의 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서구의 선교운동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도전일 수 있다.

둘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 운동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비서구 다수세계 교회들과 함께 하는 선교운동이어야 한다. 주님은 피선교지였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그들을 통해 이미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다. 2021년 IBMR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개신교) 선교사 파송국가 순위에서 미국(1위)을 제외하면 2-6위는 “브라질 - 한국 - 필리핀 - 나이지리아 - 중국”의 순으로 비서구 국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지도 참조) 이외에도 대부분의 성장하는 비서구 다수세계교회들 안에서 타문화 선교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앞으로 비서구 교회로부터 파송되는 선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연합과 동역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한국교회는 강점을 갖고 있다. 피선교지 교회로서 선교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고 비서구 출신 교회로서 서구적 선교모델을 경험한 교회이기도 하다. 서구 주도적 선교운동이 퇴장하고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

국교회 선교의 이러한 경험은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비서구 교회들은 많은 재정과 문명적 우위에 기초해 운영되는 서구의 선교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의 선교”, 즉 희생적 삶과 섬김, 그리고 영적 능력 등에 기초한 초기 기독교의 선교 영성을 담아내는 선교구조를 새롭게 (저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서구 선교패러다임에 기초해 선교운동을 진행해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 초기 기독교가 걸어왔던 “약함의 선교”를 실천한 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비서구교회 선교운동과 함께 세계기독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전도지역 선교에 대한 재발견이다. “선교 중지”(모라토리움) 요청이 선포되고 에큐메니컬 선교운동에 따른 세상 변혁적 선교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일어나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복음전도와 교회개척 중심의 복음주의 선교운동은 큰 위기를 직면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잔세계복음화대회 (1974)를 계기로 제기된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이었다. 복음이 없는 지역을 향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면서 복음주의 선교운동은 다시 선교적 부흥기를 맞이했다. 한국교회의 선교운동 역시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의 열풍 속에서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21세기 “세계기독교” 시대는 여러 면에서 1970년대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선교 일시중지(모라토리움)” 요청은 없지만 비서구 교회들의 선교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서구 (한국)의 선교운동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점은 다른 의미의 선교 모라토리움 요청이 될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영혼들을 향한 새로운 각성 운동이다.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은 여러 이유로 21세기 들어 그 열기가 식었는데 이는 이 운동이 갖고 있던 여러 한계들의 결과다.⁴ 그러나 이 운동이 강조했던 것, 즉 복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지역과 영혼들에 대한 영적 부담은 여전히 소중하며 21세기 선교운동이 회복해야 할 영역이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에는 아직도 28.2%의 인구가 교회가 없고 여러 이유로 복음으로부터 차단된 지역에 살고 있다 (Zurlo, Johnson & Crossing 2021, 23) 많은 이들이 아직도 파송된 선교사가 없이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타문화 선교운동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다.

4 당시 서구 기독교 지도자들의 토의는 다분히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기생존 논리의 성격이 강했다. 미전도상태에 대한 규정, 종족과 복음화 기준 등 지나치게 복잡한 이론적 논의가 지배했다.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학적 전략을 통해 이를 성취하려던 인본주의적 접근의 한계도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서구 선교단체들의 생존논리로 작용했던 부분도 배제되어야 하고 성경해석의 오류와 자의적인 종말론적 구호들도 선교운동의 혼란을 겪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세계기독교 상황에서의 미전도 지역을 향한 선교운동은 서구 선교세력 뿐아니라 비서구 교회들의 선교세력과의 대등한 연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쩌면 문화적, 지역적으로 미전도지역에 더 근접한 교회들이 주도하고 여타 지역 출신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한편 이런 상황은 선교운동의 초점과 관련하여 열린 토론을 요청한다. 젠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비서구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선교의 영적 차원을 강조한다. 영혼구원이나 교회개혁, 영적 은사들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지역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에 반해 최근 서구에서 논의되는 선교의 주제들은 피조세계 전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자신학화,” “교회의 선교적 본질 회복” 등 서구교회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들에 집중된 면이 있다. 서구교회가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내부적 개혁 성향이 강해 보인다. 세계기독교 시대의 선교운동은 서구와 비서구가 제기하고 있는 두 관점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1974년 로잔세계복음화대회에서 제기되었던 미전도상태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책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긴박감을 오늘날 상황에 맞도록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서구 다수세계 교회들과 함께 “그들의 방식을 따라” 미전도지역을 향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어쩌면 미전도지역을 향한 선교적 움직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 회복에 침체한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 극복의 대안이 있을 지 모른다. (지역적, 영역적 경계를 넘어) “땅끝을 향한 행진”, 이것이야말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던 그 순간부터 교회를 지배하던 불변의 지향성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맺는 말

“세계기독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기독교 상황을 의미한다.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난 변화를 지나온 (세계화된) 기독교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세계기독교” 패러다임은 선교운동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세계기독교 상황에서는 전 세계 모든 곳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들이 형성되고 동시에 이들 교회들은 다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하나됨을 지향한다. 이 과정은 동시에 선교운동의 틀로 작용한다. 즉 번역 가능한 복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각 문화권마다 자신의 문화적 토양에 맞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고 이를 기초로 그 문화 내에 빠르게 복음을 확산시킨다. 동시에 각 문화 내에서 진행되는 이 운동은 “세계화” “지구촌화”라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전세계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한편 이 두 흐름은 미전도지역과 영역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전세계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미전도 지역의 복음화 운동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땅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서구 학자들이 “세계기독교” (서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교회가 주인이 되어 정의되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그들의 과거 제국주의적 실수들에 대한 죄책감이 깔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기독교의 “세계”는 과거에 대한 미안함을 담는 단어여서는 안 된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를 향한 미래지향적 도전, 즉 전세계 모든 교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 과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도전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보쉬, 2023 『길의 영성: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선교적 영성』 김동화 옮김.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 마이클 H. 고힌, 2022 『21세기 선교학 개론』 이대헌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알렌 크라이더, 2021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김광남 옮김. 서울: Ivp.
- 크리스토퍼 라이트, 2012, “선교의 미래적 동향,” 크레이그 G. 바돌로뮤 외 2인. 편집 『복음주의 미래: 쟁점과 전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3-212.
- Cabrita, Joel and David Maxwell, 2017. “Introduction: Relocating World Christianity,” Joel Cabrita, David Maxwell and Emma Wild-Wood, eds., *Relocating World Christianity: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Universal and Local Expressions of the Christian Faith*. Leiden: Brill, 1-44.
- Cathcart, Chelle and Mike Nichols, 2009, “Self-Theology, Global Theology, and Missional Theology in the Writings of Paul G. Hiebert” *Trinity Journal*, 30. 209-221.
- Franklin, Kirk, 2017, “Leading in Global-Local Missional Contexts: Learning from the Journey of the Wycliffe Global Alliance,” *Transformation*. 34(4), 282-300.
- Hanciles, Jehu J. ed., 2021. *World Christianity: History, Methodologies, Horizons*. Maryknoll: Orbis Books.
- Hiebert, Paul G, 1987.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11(3), 103-112.
- Irvin, Dale T. 2008. “World Christianity: An Introduction,” *The Journal of World Christianity*, 1(1), 1-26.
- Jenkins, Philip, 2011.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bigin, Lesslie, 1983.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 Parratt, John ed. 2004. *An Introduction to Third World Theolo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nnent, Timothy C. 2007, *Theology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 Grand Rapids: Zondervan.
- Van Gelder, Craig, 2013. "The Future of the discipline of Missiology: Framing current realities and future possibilities,"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2(1), 39-56.
- Walls, Andrew F. 2002. "The Ephesian Moment: At a Crossroads in Christian History," Andrew F. Walls,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and Appropriation of Faith*. Maryknoll: Orbis Books, 72-81.
- Zurlo, Gina A., Todd M. Johnson, and Peter F. Crossing, 2021.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2021: Questions about the Futur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5(1), 15-25.